

## 《素問·天元紀大論》에 대한 研究

육상원\* 박경\*\* 금경수\*\*\* 김남수\*

\*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 :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정보학과

### ABSTRACT

In *Cheon Won Gi Dae Ron*(天元紀大論), *Cheon*(天) means Nature, *Won*(元) means sources, *Gi*(紀) is *Gang Gi*(綱紀) that means rules or regulations, so *Cheon Won Gi*(天元紀) means sources and rules of change that make Nature phenomenon. This volume treats of cause that weather change of Nature caused by, and its general rules, and presents fundamental notions and systems of measuring of 'Five elements' evolutions and Six kinds of natural factors(五運六氣). So named *Cheon Won Gi Dae Ron*(天元紀大論).

This article of the research on the *Cheon Won Gi Dae Ron*(天元紀大論) can be divided into 3 chapters.

Chapter 1 presents a theory that the principle of changes of creations' birth, growth and extinction is accomplished by sympathizing with *Hyeong*(形) of *Ji*(地) and *Gi*(氣) of *Cheon*(天) by rules of movement of *O Un Yum Yang*(五運陰陽).

Chapter 2 presents theories that *Tae Heo*(太虛) makes *Won Gi*(元氣), and this *Won Gi*(元氣) makes the change of creations' birth, growth and extinction, and movement of *O Un*(五運) controls creation of nature. And treats of that 'excessive and short(太過不及)' that is made by a quality of *Gi*(氣) and ups and downs of *Hyeong*(形) controls weather of year.

In Chapter 3, *Cheon O Ji Yuk*(天五地六) regard six and five as *Yong*(用). And A Cycle that movement that sympathizing with *O Un*(五運) and *Yuk Gi*(六氣) is *Il Gi*(一紀) as 30 years, and *Il Ju*(一周) as 60 years. And presents that *O Un*(五運) and *Yuk Gi*(六氣) that *Gan Ji*(干支) control.

Key Word : *Cheon Won Gi*(天元紀), Five element evolutions and Six kinds of natural factors(五運六氣), *Hyeong* of *Ji*(地形), *Go* of *cheon*(天氣).

접 수 : 2000년 4월 27일

채 택 : 2000년 5월 5일

교신저자 : 육상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0653-850-6847)

## I. 緒 論

本篇은 《內經》의 이론을 정리하고 애매한 내용에 대하여 풀이한 《難經》이나, 魏晉代에 皇甫謐이 《素問》, 《鍼經》, 《明堂孔穴鍼灸治要》의 내용을 분류하여 합편한 《甲乙經》, 그리고 隋唐代에 楊上善이 《素問》과 《靈樞》를 합하여 재배열한 《太素》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唐代에 王冰이 9卷으로 된 全元起本을 24卷으로 次序를 바꾸어 재편집하고 注를 달면서 제 19권에 補入하였고, 明代에 이르러 張介賓이 《素問》과 《靈樞》의 내용을 472條로 분석하고 12類로 묶어 편집한 《類經》<sup>1)</sup>에는 23卷 《運氣類》에 全文이 編述되어 있다.

《素問》에 있는 「天元紀大論」, 「五運行大論」, 「六微旨大論」, 「氣交變大論」, 「五常政大論」, 「六元正紀大論」, 「至眞要大論」을 運氣七篇이라고 稱하는데, 이 7편에 대하여 龍<sup>2)</sup>은 “新校正에는 이들이 《素問》의 원문이 아니고 《陰陽大論》의 문장이라 생각되는데, 王冰이 여기서 채록하여 없어진 卷을 보충한 것일 것이라고 하였으나, 丹波元簡은 王叔和가 《傷寒論》에 《陰陽大論》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 7편의 文句가 없기 때문에 新校正의 說은 믿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黃帝內經》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難經》, 《甲乙經》, 《太素》에도 7편의 말이 한 구절도 인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 7편은 처음부터 있던 《素問》의 原文이 아니고 후에 삽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本篇은 이 7편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篇으로 《黃帝內經》의 五運六氣를 논한 여러 편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어 總論에 해당된다.

「天元紀大論」의 ‘天’은 自然界를 말하고, ‘元’은 源과 뜻이 같으니 根源의 의미가 있고, ‘紀’는 綱紀의 의미로 흔히 規則이나 規定으로 풀이되므로, ‘天元紀’란 곧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根源과 그 變化規則을 말한다. 本篇은 주로 자연계의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과 그것의 일반적인 규칙에 대하여 論하였고, 五運六氣의 기본개념과 계산법을 제시하여 運氣學說의 總論에 해당되기 때문에 「天元紀大論」이라고 하였다.<sup>3)</sup>

本篇의 내용을 세 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 1장은 五運陰陽이 天地의 形氣가 서로 감응하여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논하였고, 제 2장은 《太始天元冊》을 인용하여 太虛에서 만물이 生化하는 내용과 氣의 多少와 形의 盛衰에 의하여 太過와 不及이 나타나고, 이 太過와 不及에 의하여 天符 歲直(歲會) 三合(太乙天符)이 형성되는 것, 그리고 天地의 上下가 서로 응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논하였고, 제 3장은 五運六氣의 運轉周期와 天干이 五運을, 地支가 六氣를 주관하며, 六氣와 三陰三陽이 결합하는 상황에 대하여 논하였다.

또한 馬蒔<sup>4)</sup>는 “本篇과 뒤에 나오는 運氣

1)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9, pp.532-538

2)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논장, 서울, 1990, pp.33-34

3) 方藥中 등, 《黃帝內經運氣七篇講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p.41

諸篇은 모두 五運六氣와 南政北政을 논한 것으로, 무릇 天時에 따른 백성들의 질병과 人事 등의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醫籍 가운데 매우 귀중한 것이니, 學者가 열심히 연구하여 그 大義에 밝게 되면 每年每月의 氣候와 病證에 治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고 하여 五運六氣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本篇은 이렇게 중요한 運氣學說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이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內經》의 陰陽과 五行 및 運氣를 논한 諸篇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篇이다.

그러나, 그 뜻이 너무 難解하며 古文이라 생략되어 있고 難澁하여 본래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諸家의 註釋을 취합하고 이들을 비교 고찰하여 原文의 정확한 의미를 밝힘으로써 運氣學說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하였다.

## II. 研究方法 및 資料

本篇을 내용별로 3章으로 나누었고 原文과 各家의 註釋에는 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吐를 달았으며, 校勘, 字句解, 較註, 考察, 直譯, 意譯, 結語의 순서로 연구하였다.

가. 原文은 《聚珍倣宋版印本》<sup>5)</sup>을 底本으로 하였고, 章節의 분류는 任<sup>6)</sup>의

- 4)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8, p.412
- 5) 王冰, 《素問王冰注》, 臺灣中華書局, 臺北市, 1992.
- 6)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

《黃帝內經章句索引》을 중심으로 景岳<sup>7)</sup>의 《類經》과 山東中醫學院<sup>8)</sup>의 《校釋》, 程<sup>9)</sup>의 《素問注釋匯粹》, 楊<sup>10)</sup>의 《中醫運氣學》 등을 참고하였다.

나. 懸吐는 전래의 方式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 校勘에 인용한 書目은 <表. 1>과 같다.

라. 較註는 <表. 2>의 11종 자료의 註釋들에서 내용이 유사한 것을 모았으며, 모은 註釋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중심으로 국역하고, 그 註釋의 原文들은 脚註로 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直譯은 原文의 文法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바. 본 연구에 사용한 부호는 校勘에 ‘00’, 字句解에 ‘(00)’, 較註에 ‘[00]’, 引用文獻에 ‘《 》’, 引用篇과 論文에 ‘『 』’로 표기하였으며, 脚註는 ‘1), 2), 3)……’의 一連番號로 표기하였고, 較註과정에서 중점적으로 翻譯한 註釋에 ‘●’로 표시하였다.

社, 北京, 1986.

7)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9.

8)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9) 程士德, 《素問注釋匯粹(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10)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95.

<表. 1> 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번호	書名	略稱	備考
1	明綠格抄本	明抄本	《黃帝內經素問語譯》에서 引用하였음
2	守山閣刊本	守校本	
3	內經評文	評文	《黃帝內經素問校釋》에서 引用하였음
4	素問釋義	釋義	
5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發微	
6	黃帝內經素問吳注	吳注本	
7	類經	類經	
8	黃帝內經素問靈樞張馬合編	合編	
9	素問懸解	懸解	
10	黃帝內經素問今釋	今釋	인민위생출판사에서 明顧從德刻本을 影印한 素問을 저본으로 삼은 서적임
11	黃帝內經素問校釋	校釋	
12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講解	

<表. 2> 較註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번호	註釋家	時代	書名	略稱
1	王冰	唐	黃帝內經素問	王
2	馬蒔	明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馬
3	吳崑	明	黃帝內經素問吳注	吳
4	張介賓	明	類經	景岳
5	張志聰	清	素問集注	張
6	高世栻	清	素問直解	高
7	姚止庵	清	素問經註節解	姚
8	山東中醫學院	1958	黃帝內經素問白話解	白話
9	王琦 等	1980	黃帝內經素問今釋	今釋
10	郭靄春	1980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語譯
11	山東中醫學院	1980	黃帝內經素問校釋	校釋

### Ⅲ. 研究內容

#### 第 1章 五運陰陽의 理致

##### 第 1節 五運陰陽과 天地之道

###### 【原文】

黃帝問曰 天有五行하야 御<sup>(1)</sup>五位<sup>(2)</sup>하야 以

生寒暑燥濕風하고 人有五藏하야 化五氣하야 以生喜怒思憂恐<sup>(1)</sup>라 論에 言五運이 相襲<sup>(3)</sup>而皆治之하야 終期<sup>(4)</sup>之日<sup>(2)</sup>에 周而復始라 하니 余已知之矣어니와 願聞其與三陰三陽之候<sup>(5)</sup>는 奈何合之오 鬼臾區 稽首<sup>(6)</sup>再拜하고 對曰 昭乎哉라 問也

여 夫五運陰陽者는 天地之道也요 萬物之綱紀요 變化之父母요 生殺之本始요 神明之府也나 可不通乎아  
 故로 物生을 謂之化요 物極을 謂之變<sup>3)</sup>이요 陰陽不測을 謂之神이요 神用無方<sup>(7)</sup>을 謂之聖<sup>4)</sup>이니이다

**【校勘】**

- 1) 以生喜怒思憂恐: 「陰陽應象大論」에는 '思'가 '悲'로 되어 있고, 《合編》에는 '以生喜怒憂思恐'으로 되어 있다.
- 2) 終期之日: 《合編》과 《類經》, 「六節藏象論」에는 모두 '終基之日'로 되어 있다.
- 3) 物生謂之化 物極謂之變: 《合編》에는 '物生之化 物極謂之變'으로 되어 있다.
- 4) 陰陽不測謂之神 神用無方謂之聖: 《發微》와 《合編》 및 《醫部全錄》의 馬蒔注에는 '陰陽莫測謂之聖 神用無方謂之神'으로 되어 있다.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合編》과 《發微》의 馬蒔注에 “其陰陽莫測을 謂之聖이요 神用無方을 謂之神이라 總承變化라”고 하여 神과 聖이 바뀌어 있는데, 다른 注釋本에 이렇게 표기된 책이 없으며 《周易·繫辭上傳》에 '陰陽不測之謂神'과 '神无方而易无體'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神과 聖을 바꾸어 기록한 것은 誤謬라고 사료된다.

<較註에 대한 考察>

'天有五行'에 대하여 景岳·馬·吳 등은 木火土金水로 보았고, 張은 하늘에 있는 丹黃今蒼素元의 五氣가 十干의 구분점을 지하는데 이 十干의 기운이 땅의 五行으로

化하고 땅의 五行이 天의 六氣를 生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馬가 제시한 甲己化土, 乙庚化金, ... 의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고, 아울러 天의 五行이 순차적으로 운행함으로 인하여 지구상에서는 四時의 구별이 생기고 이에 따라 寒熱溫涼 등의 여섯 가지 氣候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설명한 것이다.

'寒暑燥濕風'에 대하여 景岳은 '東方生風 南方生暑 ...' 등으로 설명하여 다섯 가지를 언급하였고 高·黃도 다섯 가지만 거론하였으나, 馬·張·白話·校釋은 天之六氣를 말한다고 하면서 여섯 가지를 열거하여 자연계의 기후변화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高는 유독 五氣로 고정시켜 뒤의 '人有五臟之氣'와 더불어 天地人이 5라는 숫자로 相合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뒤에 五六相合을 묻고 답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다른 주석가의 견해처럼 五行의 운행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자연계의 六氣를 대표하여 5가지만 나열한 것이므로, 억지로 숫자를 일치시키려고 한 高의 견해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人有五臟 化五氣'의 '五氣'에 대하여 馬·高·校釋 등은 단순히 五臟之氣로 보았으나, 張·黃은 일반적인 氣候가 아닌 자연계의 寒暑燥濕風 등의 작용과 비슷한 生理現象인 五氣가 喜怒哀憂恐의 五志를 生한다고 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天에는 五行이 있어서 五位를 다스려 寒暑燥濕風이 生하고, 人에는 五臟이 있어서 五臟의 氣를 生化하여 喜怒哀憂恐을 生한다. 論에 “五運이 서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다스려 一年의 周

期를 마치는 날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내가 이미 이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三陰三陽의 징후와 어떻게 합치되는지를 듣기 원합니다.

鬼臯區가 머리를 조아려 再拜하고 대답하기를, 밝기도 합니다. 질문이여! 무릇 五運陰陽은 天地의 道이며, 萬物의 綱紀이며, 變化하는 父母이며, 만물을 生殺하는 근본과 시작이며, 神明의 작용이 일어나는 곳집이니 가히 이 이치에 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萬物이 生하는 것을 化라 하고, 萬物이 極에 이르는 것을 變이라 하고, 陰陽의 변화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을 神이라 하고, 神의 작용이 일정한 方位가 없는 것을 聖이라고 합니다.

### 第 2節 形氣相感과 萬物의 生化

夫變化之爲用也 在天爲玄이요 在人爲道요 在地爲化니 化生五味하고 道生智하고 玄生神<sup>1)</sup>이라

神이 在天爲風이요 在地爲木이며 在天爲熱이요 在地爲火며 在天爲濕이요 在地爲土며 在天爲燥요 在地爲金이며 在天爲寒이요 在地爲水라

故로 在天爲氣요 在地成形하니 形氣相感하야 而化生萬物矣라

然이나 天地者는 萬物之上下也요 左右者는 陰陽之道路也요 水火者는 陰陽之徵兆也요 金木者는 生成之終始也라

氣有多少하고 形有盛衰하니 上下相召하야 而損益彰<sup>(1)</sup>矣니이다

#### 【校勘】

1) 玄生神: 《校釋》에 “《評文》에는 이

세 글자를 삭제하였다.”고 하였다.

#### 【考察】

<較註에 대한 考察>

‘在天爲風 在地爲木’에 대하여 王·姚는 風을 철학적인 입장에서 풀이하여 백성을 교화하며 하늘의 명령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다음 구절의 熱과 火, 濕과 土, 등에 주석한 내용과는 다른 각도에서 풀이하여 앞뒤구절이 일관성이 없으며, 景岳·高 등이 하늘의 형체가 없는 六氣와 땅의 형체가 있는 五行이 각각 기운을 같이 한다고 보았고, 白話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六氣와 五行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만물이 성장한다고 해석한 주석과는 큰 차이가 있다.

‘在天爲玄’부터 ‘在地爲水’까지는 「陰陽應象大論」과 「五運行大論」에 거듭 나오는 구절이다. 이 글의 의미는 하늘의 깊은 眞理가 만물을 주재하는 神을 낳고, 이것이 인간에게는 道로 인지되어 지혜를 낳고, 아울러 우주안에서는 만물의 생화하는 현상으로 드러나 五味를 지닌 물질을 낳는다는 내용의 진리가 인간과 우주속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존재하는 가를 설명하였으며, 이렇게 형상화된 우주공간속에서 神의 작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곧 하늘과 땅에서 무형의 六氣와 유형인 五行이 상응하되 同氣相求하므로 속성을 같이하는 무리를 분류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 뒤에는 계속하여 하늘의 六氣와 땅의 五行이 서로 기운을 주고 받는 속에서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在天爲氣’의 ‘氣’에 대해서는 王·吳·景岳·高·姚는 위 글에서 언급한 風熱濕燥寒이라고 하였고, 今釋·語譯은 無形의 六氣라고 하였는데, 黃은 五氣라고 주석하여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같은 뜻이다.

‘氣有多少’에 대하여 王·景岳 등은 氣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天六氣로 보았고, 馬·張 등은 天氣로 보았으나, 白話는 五氣로 보았다. 그러나 전 句節에 대한 주석들의 전체적인 의미는 서로 큰 차이 없이 氣이 多少가 있고 形에 盛衰가 있어 上下의 氣와 形이 서로 감응하여 만물이 변화하게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 【直譯】

무릇 변화의 작용은 天에 있어서는 玄이 되고 人에 있어서는 道가 되고 地에 있어서는 生化가 되니, 이 化는 五味를 낳고 道는 지혜를 낳고 玄은 神을 낳습니다.

이 神이 天에 있어서는 風이, 地에 있어서는 木이 되며, 天에 있어서는 熱이, 地에 있어서는 火가 되며, 天에 있어서는 濕이, 地에 있어서는 土가 되며, 天에 있어서는 燥가, 地에 있어서는 金이 되며, 天에 있어서는 寒이, 地에 있어서는 水가 됩니다.

그러므로 天에서는 氣가 되고 地에서는 形을 이루니, 地의 形과 天의 氣가 서로 감응하여 만물을 化生합니다.

그러나 天地는 만물의 上下가 되고, 左右는 陰陽이 운행하는 道路가 되고, 水火는 陰陽의 징조가 되고, 金木은 생성하는 終始가 됩니다. 氣에는 많고 적음이 있고 形에는 盛하고 衰함이 있으니, 上下가 서로 감응하여 損益이 나타납니다.

## 第 2章 形氣의 多少盛衰와 天地陰陽의 上下相召

### 第 1節 五氣運行과 萬物生化

### 【原文】

帝曰 願聞五運之主時也 是 何如也  
鬼臾區曰 五氣運行은 各終期日<sup>1)</sup>이요 非獨主時也니이다

帝曰 請問其所謂也<sup>2)</sup>니이다

鬼臾區曰 臣이 積<sup>2)</sup>考太始天元冊<sup>1)</sup>文<sup>3)</sup>하니 曰太虛廖廓<sup>3)4)</sup>에 肇<sup>4)</sup>基化元하니 萬物이 資始하고 五運이 終天하며 布氣眞靈<sup>5)</sup>하야 總統坤元<sup>5)6)</sup>이라 九星<sup>7)</sup>이 懸朗<sup>8)</sup>하고 七曜<sup>9)</sup>周旋하니 曰陰曰陽이요 曰柔曰剛이라 幽顯 既位에 寒暑弛張하고 生生化化에 品<sup>10)</sup>物咸章<sup>11)</sup>이라하니 臣斯十世 此之謂也니이다

### 【校勘】

- 1) 各終期日: 《合編》과 《類經》에는 모두 ‘各終暮日’로 되어 있다.
- 2) 請問其所謂也: 《合編》에는 ‘請問其所謂也’로 되어 있고, 《語譯》에 “『守校本』에는 ‘問’이 ‘問’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 3) 積考太始天元冊文: 《合編》에는 ‘積攷大始天元冊文’으로 되어 있고, 《語譯》에는 “‘積’은 마땅히 ‘稽’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 4) 太虛廖廓: 《合編》과 「五常政大論」에는 ‘太虛寥廓’으로 되어 있고, 《語譯》에 “『守校本』에는 ‘廖’가 ‘寥’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 5) 總統坤元: 《懸解》에는 ‘總統乾元’으로 되어 있고, 《今釋》·《校釋》·《講解》에는 ‘摠統坤元’로 되어 있다.

###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總統坤元’에 대하여 黃의 《素問縣解》 원문에는 ‘總統乾元’으로 되어 있어 ‘坤’字가 ‘乾’字로 바뀌어 있고, 注釋에도 ‘總統乾元’

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주석가들이 《周易》의 乾卦와 坤卦의 내용을 인용하여 乾元이 坤元을 다스리는 것으로 풀이하였고 다른 版本도 ‘坤’字로 되어있으므로 《素問縣解》의 誤記로 사료된다.

〈較註에 대한 考察〉

‘五氣運行各終期日 非獨主時也’의 ‘各終期日’에 대하여 王·馬·景岳 등은 五運之氣가 각각 1년을 마친다고 하여 ‘期日’을 ‘暮日’ 즉 1년으로 보아서 中運(大運,歲運)의 의미로 설명하였고, 吳·高 등은 五氣가 일정한 시간 즉 73日 5刻을 차례로 돌아가면서 주관하여 1년을 마친다고 하여 ‘期日’을 일정한 시간으로 해석하여 主運(客運)의 의미로 설명하였으나, 白話는 主歲,主時,主日을 언급하여 두 의견을 포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黃帝가 五運이 四時를 주관하는 것에 대하여 물었고, 바로 뒤에 대답하기를 홀로 어느 四時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글귀를 볼 때, 王·馬 등이 1년의 의미로 보았고 程·楊등도 ‘期日’을 ‘暮日’로 기록하여 1년으로 풀이하였으나, 木火土金水運이 차례로 주관하는 것이 5년을 周期로 할 수도 있고 1년이나 하루를 周期로 할 수도 있으므로 吳·高·白話 등의 견해처럼 ‘期日’을 일정한 期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曰陰曰陽 曰柔曰剛’에 대하여 많은 주석가들이 《周易》의 “立天之道曰陰與陽이요 立地之道曰柔與剛이라”는 글을 인용하여 注釋하였는데, 유독 馬는 이 문장을 《周易》의 「繫辭傳」에서 인용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說卦傳」에 나오는 글이므로 馬의 잘못된 기억이거나 기록상에 차질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五運이 주관하는 시기는 어떠한지를 듣고 싶습니다.

鬼臾區가 대답하기를 五氣의 運行은 각각 期日에 끝나는 것이지, 유독 어느 한 계절만을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鬼臾區가 대답하기를 臣이 오래도록 『太始天元冊』의 내용을 상고해보니 “크게 비고 광활하여 끝없는 宇宙 공간에 비로소 化元이 세워지니 만물이 이것을 바탕으로 始生하고, 五運이 天運을 돌아 365일을 마치며 眞靈한 氣를 산포하여 坤元을 총괄하여 다스린다. 九星이 하늘에 매달려 밝게 빛나고 七曜가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돌고 있으니, 天道로서는 陰陽이라 하고 地道로서는 剛柔라 한다. 어둠과 밝음이 이미 자리를 잡으면 추위와 더위가 왕래하고, 끊임 없는 생성과 변화 속에 수많은 종류의 사물이 모두 형상을 드러낸다.”고 하였으니, 臣이 이 글을 전습해온지 10세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第 2節 氣의 多少와 形의 盛衰

【原文】

帝曰 善하다 何謂氣有多少며 形有盛衰오  
鬼臾區曰 陰陽之氣에 各有多少하니 故로  
曰三陰三陽也요 形有盛衰는 謂五行之治에  
各有太過不及也라 故로 其始也에 有餘而往  
하면 不足隨之하고 不足而往하면 有餘從之  
하나니 知迎知隨면 氣可與期라 應天爲天符  
(1)요 承歲爲歲直(2)이니 三合爲治니이다

【考察】

‘陰陽之氣 各有多少 故曰三陰三陽也’에 대하여 王·馬·景岳 등은 “三陰三陽의 氣가 多少에 따라 陰이 많은 것은 太陰이, 다음은 少陰이, 다음은 厥陰이 되며, 陽이 많은 것은 太陽이, 다음은 陽明이, 다음은 少陽이 된다.”고 하였으나, 張은 “太陽少陽少陰은 先天을 운행하여 有餘를 주장하고, 陽明太陰厥陰은 後天을 운행하여 不足을 주장한다.”고 하였는데, 張의 三陰三陽에 대하여 先後天으로 주석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나누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를 기대한다.

‘應天爲天符 承歲爲歲直 三合爲治’의 ‘三合爲治’에 대하여 주석가들이 三合을 天氣, 運氣, 年支가 합치되는 太乙天符로 풀이하었는데, 이 세가지가 합치되면 물론 太乙天符에 해당되는 것은 옳지만, 뒤의 ‘治’字 때문에 三合을 太乙天符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六微旨大論」에 “帝曰 其貴賤은 何如오 岐伯曰 天符爲執法이요 歲會爲行令이요 太一天符爲貴人이라 帝曰 邪之中也은 奈何오 岐伯曰 中執法者는 其病速而危하고 中行令者는 其病徐而持하고 中貴人者는 其病暴而死라”고 하여 三合 즉 太乙天符年에는 그 病이 격렬하고 죽게된다고 하였으니, 이해의 기후는 平治가 아닐 것이다. 만약 平治의 해라면 病候가 이처럼 극렬하게 이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느 해의 大運이 비록 太過不及이 없더라도 天符, 歲會, 太乙天符의 해는 모두 五行屬性이 같은 해이므로 氣候가 반드시 偏勝할 것이고, 이로 인해 질병이 많이 발생하므로 다스려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楊도 ‘爲治’를 ‘合治’로 풀이하어 運氣, 天氣, 年歲의 三氣가 합하여 그 해를 다스린다는 의미로 보았다. 그러므로, 여기의 ‘三合爲治’는 中運의 氣와

司天의 氣 및 歲支의 五行이 합하여 그 해를 다스린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三合’을 太乙天符의 해로 보고 太過不及이 없는 平氣之年이라고 풀이한 張·高·白話의 견해는 그르다고 보며, 결국 ‘三合爲治’란 그 해의 기후를 中運之氣, 司天之氣, 歲支之氣의 三氣가 합하여 다스린다는 뜻이지, 運氣, 天氣, 歲支의 三氣가 合致되는 해가 太乙天符가 된다는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氣에는 多少가 있으며 形에는 盛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鬼臾區가 말하기를, 陰陽의 氣에는 각각 많고 적음이 있으므로 三陰三陽이라고 하고, 形에 盛衰가 있다는 것은 五行의 다스림에 각각 太過와 不及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할 때에 有餘한 것이 가면 不足한 것이 이를 따르고 不足한 것이 가면 有餘한 것이 이를 좇아오니, 迎과 隨를 알면 歲氣의 상황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中運이 司天의 氣와 상응하면 天符가 되고, 承歲 즉 中運과 歲支의 氣가 같으면 歲直(歲會)이 되니, 中運과 司天의 氣 및 歲支의 氣 이三者를 합해서 治歲를 결정합니다.

**第 3節 天地陰陽의 上下相召**

**【原文】**

帝曰 上下相召<sup>(1)</sup>는 奈何오  
鬼臾區曰 寒暑燥濕風火는 天之陰陽也니 三陰三陽이 上奉之하고 木火土金水火<sup>(1)</sup>는 地之陰陽也니 生長化收藏이 下應之라

天은 以陽生陰長하고 地는 以陽殺陰藏하니  
 天有陰陽하고 地亦有陰陽이라 (木火金土水  
 火는 地之陰陽也니 生長化收藏<sup>2)</sup>) 故로 陽  
 中有陰하고 陰中有陽이라  
 所以欲知天地之陰陽者는 應天之氣는 動而  
 不息<sup>2)</sup> 故로 五歲而右遷<sup>3)</sup>하고 應地之氣는  
 靜而守位 故로 六期而環會<sup>3)</sup>하니 動靜相召  
 하고 上下相臨하고 陰陽相錯<sup>4)</sup>하야 而變由  
 生也니이다

**【校勘】**

- 1) 木火金土水火: 《吳注本》에는 ‘木火金土  
 水’로 되어 있다.
- 2) 木火金土水火 地之陰陽也 生長化收藏:  
 《類經》과 《吳注本》에는 이 16字가 없  
 다.
- 3) 六期而環會: 《合編》과 《類經》에는 모  
 두 ‘六暮而環會’로 되어 있다.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木火土金水火 地之陰陽也 生長化收藏 下  
 應之’의 ‘木火土金水火’에 대하여 王·馬·  
 景岳·張 등은 地의 五行에서 火가 君火와  
 相火로 나뉘어 木火土金水火가 되어 天의  
 風寒暑濕燥火 六氣와 상응한다고 하였으나,  
 吳는 木火土金水는 地의 五行으로 生長化  
 收藏의 변화규칙이 상응하며 天은 六으로  
 地는 五로 節制하기 때문에 ‘火’字를 제거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景岳이 언급한 것처  
 량 上文의 ‘神在天爲風’等十句에서 天에  
 風熱濕燥寒, 地에 木火土金水の 5가지만을  
 말하였으나 이곳은 五行이 六氣로 化하여  
 上下相召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天地가 모두 天의 六氣가 작용하여 地에서  
 生長化收藏의 변화가 일어남을 언급한 곳

이므로 地의 五行을 君相으로 나누어 六氣  
 에 배합한 王·馬·景岳 등이 견해처럼  
 ‘火’字가 필요하다고 본다.

‘木火金土水火 地之陰陽也 生長化收藏’에  
 대하여 高는 地에 陰陽이 있다는 것을 거  
 듭 밝힌 것이라고 하였으나, 吳·景岳 등은  
 衍文으로 보아 제거하였고 語譯과 校釋에  
 도 삭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전후 문장  
 이 天에 三陰三陽이 있어 地에 生長化收藏  
 하는 변화가 생기니 天의 陽生陰長 地의  
 陽殺陰藏이요 天에 陰陽이 있고 地에 陰陽  
 이 있음으로 陽중에 陰이 있고 陰중에 陽이  
 있다는 내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吳·景  
 岳 등의 견해처럼 이 16字는 불필요한 글  
 이 삽입된 것이므로 삭제하여야 한다고 본  
 다. 따라서 해석에서도 본 구절은 제외하였  
 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天地上下가 서로  
 感應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鬼臾區가 말하기를, 寒暑燥濕風火는 天의  
 陰陽이니 三陰三陽이 위로 이것을 받들고,  
 木火土金水火는 地의 陰陽이니 生長化收藏  
 이 아래로 이에 應합니다.

天은 陽氣로써 生하고 陰氣로써 자라게  
 하며, 地는 陽氣로써 죽이고 陰氣로써 저장  
 하게 하니, 天에 陰陽이 있고 地에도 陰陽  
 이 있으므로 陽 가운데 陰이, 陰 가운데 陽  
 이 있는 것입니다.

天地의 陰陽을 알고자 하는 것은 天에  
 응하는 氣는 움직여 쉬지 않기 때문에 五  
 歲마다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地에 응  
 하는 氣는 고요하여 자리를 지키므로 六年  
 마다 순환하여 다시 회합하니, 動과 靜이  
 서로 부르고 上下가 서로 加臨하고 陰陽이

뒤섞여서 變化가 이를 따라 발생합니다.

### 第 3章 天地氣의 上下周紀 및 干支化 運氣의 규칙

#### 第 1節 上下周紀

##### 【原文】

帝曰 上下周紀<sup>(1)</sup>에 其有數乎아  
鬼臾區曰 天은 以六爲節이요 地는 以五爲  
制니 周天氣<sup>(2)</sup>者는 六期爲一備<sup>(1)(3)</sup>요 終地紀<sup>(4)</sup>  
者는 五歲爲一周라 君火以明이요 相火以  
位<sup>(2)</sup>라 五六이 相合而七百二十氣爲一紀니  
凡三十歲요 千四百四十氣 凡六十歲而爲一  
周니 不及太過 斯皆見矣니이다

##### 【校勘】

- 1) 六期爲一備: 《合編》·《類經》에는 모두 ‘六期爲一備’로 되어 있다.
- 2) 君火以明相火以位: 《語譯》에 “《明抄本》에는 이 여덟 글자가 없다.”고 하였고, 《王冰本》과 「至眞要大論」의 新校正에도 본문을 인용하였는데 ‘明’이 ‘名’으로 되어있으며, 《吳注本》에는 이 여덟 글자를 「六微旨大論」의 ‘復行一步 君火治之’ 아래로 옮겨놓았고, 《釋義》에도 「六微旨大論」에서 脫簡한 글인데 여기에 잘못 들어간 것이라고 하였다.

##### 【考察】

<校勘에 대한 考察>

‘君火以明 相火以位’에 대하여 王은 ‘明’字를 ‘名’으로 고쳐서 해석하였으며, 景岳 등은 君火와 相火는 각각 一步씩을 주관하여 마치 兩步를 점령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君火의 이 一步가 全年의 變化를 통솔

한다고 하였으며, 高는 君은 神明을 주관하기 때문에 ‘以明’이라고 하였고 相은 輔佐함을 주관하기 때문에 ‘以位’라 하였다고 하여 이 구절에 대하여 木火土金水의 五行으로 六氣의 여섯에 배합하여 바로 뒤에 나오는 ‘五六相合’의 구절을 보충설명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吳와 《釋義》는 위아래 글과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錯簡으로 보아서 「六微旨大論」의 ‘復行一步 君火治之’의 아래에 옮겨야 한다고 하였는데, 문맥으로 볼 때 이 구절이 빠지면 앞뒤가 순조롭게 이어지므로 錯簡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較註에 대한 考察>

‘天以六爲節 地以五爲制’에 대하여 王·吳·校釋 등은 六을 六氣나 三陰三陽으로 해석하였으나, 馬·景岳·黃 등은 六을 地支로 보아 天의 十干은 六을 用으로 삼고 地의 十二支는 五를 用으로 삼아서 五六이 相合한다고 해석하여 위의 ‘上下周紀 其有數乎’에 대한 대답으로 六과 五를 常數로 삼아 서로 節制한다고 풀이하여 王·吳보다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上의 天氣와 下의 地氣가 맞물려 돌아가는데 度數가 있습니까?

鬼臾區가 말하기를, 天은 六으로써 節을 삼고 地는 五로써 制를 삼으니, 天氣를 一周하는 것은 六期를 一備로 삼고, 地紀를 마치는 것은 五歲를 一周로 삼습니다.

君火는 明이 되고 相火는 位가 된다. 五運과 六氣가 서로 결합하여 720氣가 一紀가 되니 즉 30년이고, 1440氣 즉 60년이 一周가 되는데 不及과 太過가 여기에 모두

나타냅니다.

## 第 2節 十干化五運의 규칙

### 【原文】

帝曰 夫子之言은 上終天氣하고 下畢地紀하니 可謂悉<sup>(1)</sup>矣로다 余願聞而藏之하야 上以治民하고 下以治身하며 使百姓昭著<sup>(2)</sup>하야 上下和親하며 德澤<sup>(3)</sup>下流하야 子孫無憂<sup>(1)</sup>하며 傳之後世하야 無有終時하노니 可得聞乎아

鬼臾區曰 至數之機<sup>(4)</sup>는 迫迮<sup>(5)</sup>以微하야 其來可見이요 其往可追니 敬之者는 昌하고 慢之者는 亡하며 無道行私면 必得天殃<sup>(6)</sup>이니 謹奉天道하야 請言眞要하리이다

帝曰 善言始者는 必會於終하고 善言近者는 必知其遠이니 是則至數極而道不惑이니 所謂明矣라 願夫子는 推而次之하야 令有條理하야 簡而不匱<sup>(7)</sup>하며 久而不絕하고 易用難忘하며 爲之綱紀하노니 至數之要를 願盡聞之하노이다

鬼臾區曰 昭乎哉라 問이여 明乎哉라 道여 如鼓之應桴<sup>(8)</sup>요 響之應聲也라 臣聞之하니 甲己之歲엔 土運統<sup>(9)</sup>之하고 乙庚之歲엔 金運統之하고 丙辛之歲엔 水運統之하고 丁壬之歲엔 木運統之하고 戊癸之歲엔 火運統之니이다

### 【校勘】

- 1) 使百姓昭著 上下和親 德澤下流 子孫無憂: 《吳注本》에는 이 17字가 없고, 《合編》에는 ‘上下和親’이 ‘上下相親’으로 되어 있다.

###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생님의 말씀은 위로 天氣를 다하였고 아래로 地紀를 마쳤으니 상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원컨대 그것을 들어서 간직하여 위로는 백성을 다스리고 아래로는 몸을 다스리며, 백성들이 밝게 알도록 하여 上下가 和親하게 하며, 德澤이 아래로 흘러서 子孫으로 하여금 근심이 없도록 하며, 후세에 전하여 끝나는 때가 없도록 하고자 하오니 들을 수 있겠습니까?

鬼臾區가 말하기를, 지극한 度數의 이치는 아주 가깝고 미묘하여 그것이 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의 가는 것을 좇을 수 있으니, 이를 공경하는 자는 昌盛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亡할 것이며, 道가 없이 사사로이 行하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을 만날 것이니, 삼가 天道를 받들어서 참된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을 잘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끝을 잘 알 수 있고, 가까운 것을 잘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먼 것도 알 수 있으니, 이것은 즉 지극한 이치를 극진히 하여 道에 미혹됨이 없는 것이니 明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차례로 하나씩 미루어서 條理가 있게 하여 간명하되 모자람이 없도록 하며 오래되어도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기 쉽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며 綱紀로 삼고자 하노니, 지극한 度數의 요점을 모두 듣고 싶습니다.

鬼臾區가 말하기를, 빛나도다 질문이여! 밝도다 道理여! 마치 북이 북채에 응함과 같고 메아리가 소리에 응함과 같습니다. 臣이 듣건대, 甲己의 해에는 土運이, 乙庚의 해에는 金運이, 丙辛의 해에는 水運이, 丁壬의 해에는 木運이, 戊癸의 해에는 火運이

다스린다고 합니다.

### 第 3節 十二支化六氣의 규칙

#### 【原文】

帝曰 其於三陰三陽에 合之는 奈何오  
 鬼臾區曰 子午之歲엔 上<sup>(1)</sup>見少陰하고 丑未  
 之歲엔 上見太陰하고 寅申之歲엔 上見少陽  
 하고 卯酉之歲엔 上見陽明하고 辰戌之歲엔  
 上見太陽하고 巳亥之歲엔 上見厥陰하니 少  
 陰이 所謂標<sup>(2)</sup>也요 厥陰이 所謂終<sup>(3)</sup>也라  
 厥陰之上엔 風氣主之하고 少陰之上엔 熱氣  
 主之하고 太陰之上엔 濕氣主之하고 少陽之  
 上엔 相火主之<sup>(1)</sup>하고 陽明之上엔 燥氣主之  
 하고 太陽之上엔 寒氣主之하니 所謂本也요  
 是謂六元<sup>(4)</sup>이니이다  
 帝曰 光乎哉라 道여 明乎哉라 論이여 請著  
<sup>(5)</sup>之玉版<sup>(6)</sup>하야 藏之金匱하고 署<sup>(7)</sup>曰天元紀  
 라하리이다

#### 【校勘】

1) 相火主之: 「六微旨大論」에는 ‘相火’가  
 ‘火氣’로 되어 있다.

#### 【考察】

<較註에 대한 考察>  
 ‘少陰所謂標也 厥陰所謂終也’에 대하여  
 王·吳·姚 등은 正化와 對化로 설명하였  
 고, 馬·景岳 등은 子午에서 시작하고 巳亥  
 에서 마침을 들어 설명하였으나, 張은 ‘標’  
 字를 높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子午는 少陰  
 君火인데 人君은 지위가 높기 때문에 少陰  
 부터 시작하되 위에 높게 나타난다고 하여  
 ‘標’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였는데, 여기서  
 는 標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뒤의  
 終과 연계되고 앞 구절의 子午에서 시작하

여 巳亥에서 마친다는 내용과 일치하므로  
 ‘標’를 ‘高’로 풀이한 張의 견해보다는 馬·  
 景岳 등의 ‘首’로 풀이한 견해가 타당하다  
 고 본다.

####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三陰三陽  
 에 合해지는 것은 어떠합니까?

鬼臾區가 말하기를, 子午의 해의 上에는  
 少陰이, 丑未의 해의 上에는 太陰이, 寅申  
 의 해의 上에는 少陽이, 卯酉의 해의 上에  
 는 陽明이, 辰戌의 해의 上에는 太陽이, 巳  
 亥의 해의 上에는 厥陰이 나타나니, 少陰을  
 ‘標’(첫머리)라하고, 厥陰을 ‘終’이라합니다.

厥陰의 上에는 風氣가, 少陰의 上에는 熱  
 氣가, 太陰의 上에는 濕氣가, 少陽의 上에  
 는 相火가, 陽明의 上에는 燥氣가, 太陽의  
 上에는 寒氣가 주관하니, 本이라하며 六元  
 이라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빛나도다 道理  
 여! 밝도다 論함이여! 請컨대 이것을 玉版  
 에 새겨서 金匱에 저장하고 ‘天元紀’라고  
 하겠습니까.

## IV. 結 論

「天元紀大論」에 대한 各家註를 比較,  
 考察하고 譯解한 결과 그 주요 내용을 요  
 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萬物이 生長消滅하는 變化  
 의 原理가 五運陰陽의 운행규칙에 따라 地  
 의 形(五行)과 天의 氣(六氣)가 서로 感應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太始天元冊》의 글을 인  
 용해 太虛가 眞氣(元氣)를 만들어 내고 이  
 元氣로부터 만물이 生長變化하게 되고, 五

運의 운행이 天地間 만물을 총괄하여 다스린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氣의 多少와 形의 盛衰에 의하여 太過不及이 생기는데 이에 따라 天符, 歲會, 太乙天符가 있어서 한 해의 기후를 다스린다는 내용을 논술하였다.

제 3장에서는 天五地六이 六과 五를 用으로 삼아 五運과 六氣가 결합하여 운행하는 周期는 30년이 一紀, 60년이 一周가 된다고 하였으며, 甲己의 해에는 土運이, 乙庚의 해에는 金運이, 丙辛의 해에는 水運이, 丁壬의 해에는 木運이, 戊癸의 해에는 火運이 다스리며, 子午년은 少陰君火가, 丑未년은 太陰濕土가, 寅申년은 少陽相火가, 卯酉년은 陽明燥金이, 辰戌년은 太陽寒水가, 巳亥년은 厥陰風木이 司天이 되며, 厥陰이 司天일 때는 風氣가, 少陰이 司天일 때는 熱氣가, 太陰이 司天일 때는 濕氣가, 少陽이 司天일 때는 相火가, 陽明이 司天일 때는 燥氣가, 太陽이 司天일 때는 寒氣가 주관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1. 제 1장 1절에서 馬蒔注의 ‘陰陽莫測謂之聖 神用無方謂之神’은 ‘陰陽莫測謂之神 神用無方謂之聖’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
2. 제 2장 1절에서 ‘總統坤元’이 《素問懸解》에 ‘總統乾元’으로 되어 있는 것은 誤記로 보는 것이 옳다. 제 2장 1절의 ‘五運運行各終期日’에서 ‘期日’은 1년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일정한 期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 2장 1절의 ‘曰陰曰陽 曰柔曰剛’에 대한 馬蒔의 注釋에서 ‘易繫辭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說卦傳’에 나오는 글이므로 ‘易說卦曰’로 고치는 것이 옳다.

3. 제 2장 2절의 ‘三合爲治’에 대하여 中運之氣, 司天之氣, 歲支之氣의 三氣가 합하여 다스린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하며, ‘三合’을 太乙天符의 해가 되므로 太過不及이 없는 平氣之年이라는 주석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4. 제 2장 3절의 ‘地亦有陰陽’ 다음에 나오는 ‘木火金土水火 地之陰陽也 生長化收藏’ 16字는 衍文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제 3장 3절의 ‘少陰所謂標也’에서 ‘標’는 ‘高’의 의미보다는 시작한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參考文獻

1. 王冰, 《素問王冰注》, 臺灣中華書局, 臺北市, 卷十九 1-6, 1992.
2. 王冰, 《黃帝內經素問》, 一中社, 서울, pp. 171-177, 1993.
3.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p.412-426, 1998.
4.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pp. 532-538, 1989.
5.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68.
6. 程士德, 《素問注釋匯粹(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p.168-184, 1982.
7. 郭靄春,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pp.379-383, 1981.
8.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校釋, 《黃帝內經素問校釋(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p.841-859, 1982.
9. 馬玄臺·張隱庵,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pp.440-451, 1981.
10. 吳崑, 《黃帝內經素問吳註》, 山東科學技

- 術出版社, 北京, 1985.
11.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pp.459-469, 1982.
  12. 南京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pp.453-476, 1997.
  13. 王冰,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旋風出版社, 臺北, 1979.
  14.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成輔社, 서울, pp.492-499, 1980.
  15. 姚止庵撰, 《素問經注節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p.213-219, 1983.
  16. 王琦 外 四人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서울, pp.294-312, 1983.
  17. 黃元禦撰, 《黃元禦醫書十種(上)素問懸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p.275-280, 1990.
  18. 劉之謙 外2人編著, 《黃帝內經素問吳注評釋》,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pp.349-356, 1988.
  19. 方藥中 外,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p.41-58, 1984.
  20.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科學技術出版社, 北京, pp.306-320, 1995.
  21. 程士德, 《內經》, 도서출판醫聖堂, 서울, pp.580-617
  22. 김홍제, 〈素問·六節藏象論에 대한 研究〉, 원광대학교, 익산, pp.47-49, 1994.
  23. 邵雍, 《皇極經世書》, 臺灣中華書局(한 의학교전연구소영인), 臺北, 卷五의 一, 1982.
  24. 陳夢雷 等編, 《古今圖書集成醫部全錄》,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pp.582-594, 1991.
  25. 金根瑩, 〈素問·天元紀大論에 대한 研究〉, 대전대학교, 대전, 1998.
  26. 李慶雨, 《編注譯解黃帝內經素問4》, 여강출판사, 서울, pp.7-37, 1998.
  27. 龍伯堅, 《黃帝內經概論》, 논장, 서울, pp. 33-34, 46, 167, 1990.
  28. 金碩鎭, 《大山周易講解(上,下)》, 대유학당, 서울, 1993.
  29. 權寧奎·김은하 共譯, 《오운육기학해설》, 법인문화사, 서울, 1996.
  30. 李國卿 主編, 《素問疑識》, 一中社, 서울, pp.231-232, 1992.
  31. 李錫浩 譯, 《莊子》, 三省出版社, 서울, pp. 335-336, 1989.

### 參考辭典

1. 李熙昇編著, 《국어대사전》, 民衆書林, 서울, 1991.
2. 張三植, 《大漢韓辭典》, 博文出版社, 서울, 1975.
3. 金赫濟·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87.
4.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84.
5. 金賢濟·洪元植共譯, 《韓醫學辭典》, 成輔社, 서울, 1983.
6. 康寔鎭, 《進明中韓大辭典》, 進明出版社, 서울, 1993.
7. 林尹·高明 主編,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大學出版部, 臺北, 1985.
8.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上海, 1994.
9. 廣東廣西湖南河南辭源修訂組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縮印合訂本)》, 中華商務聯合印刷(香港)有限公司, 香港, 1987.
10. 張登本·武長春主編, 《內經詞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11. 郭靄春, 《黃帝內經詞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5.
12. 蕭元 主編, 《周易大辭典》, 中國工人出版社, 湖南省, 1991.